

내일의꿈

목회서신 | 물 댄 동산과 같은 삶
문화샐롱 | 내일만나
교육부서 | 온라인 성경학교

나의노래 |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추천도서 |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교회소식 | 신임 순장 인사, 예천오리엔테이션





사진 유승철 집사

Contents

내일의 꿈 2021년 3월(통권 290호)

- | | |
|--|--|
| <p>3 내일 서신
이관형 담임목사</p> <p>4 문화살롱 내일만나
광야 같은 삶에 위로의 찬양을 전해주는 내일만나
글 정현 강도사</p> <p>7 소소한 일상의 묵상
봄을 봄
글 내꿈팀 권지영 집사</p> <p>8 교육부서 온라인 성경학교
초등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배우는 성경학교
유년부 광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유치부 노래로 배우는 성경, 재미있는 성경학교
사랑부 가자 천국으로!</p> <p>14 나의 노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글 청년 3부 장은혜</p> | <p>17 캘리그래피
글·그림 263예친 황은파 집사</p> <p>18 추천 도서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글 오경제 목사 소망1교구 / 장년교육위원회</p> <p>20 교회소식 1 내일365기도회
내일365일기도회
정리 내꿈팀 장요한 집사</p> <p>22 교회소식 2 신임 순장인사
믿음 소망 사랑의 새 일꾼!</p> <p>24 교회소식 3 예친 오리엔테이션
온라인으로 클리닉!
2021 예친 on-line 오리엔테이션
글 교구 디렉터 이상범 목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글 382예친 순장 서은연</p> |
|--|--|

내일의꿈 2021년 3월(통권 290호)의 모든 사진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 이전 사진이거나 준수한 사진입니다.

물 댄 동산과 같은 삶

이관형 담임목사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사 58:11)”

최근 출간된 책 중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어 관하여(Growing Old in Chri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열여덟 명의 기독교 사상가들이 나이 들어 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늙어가는 법’을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조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늙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싶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더 값진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일에 나누고 있는 이사가 말씀을 생각하면, 성도의 삶은 ‘물 댄 동산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가 1장 30절에서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앞사귀 마른 상수리나무와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백성,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은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사 58:11)’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 댄 동산’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며,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기쁨(58:8~11)’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멀어진 것과 ‘물 없는 동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함으로 ‘물 댄 동산의 삶을 살아갑니

까?’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건조하고 병들어 있게 됩니다. 3월은 예친 방학기간을 마치고 예친이 다시 모임이며, 개발과정을 비롯해서 잠시 쉬었던 교회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쉬에 들어가서 은혜의 샘물이 메말라 있었다면, 예친 시작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결단이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물 댄 동산’처럼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기 원합니다.

나아가 내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성도님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함으로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일교회 온 성도가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건축했던 비전센터의 머릿말 말씀(사 59:12)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일교회에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사 58:12)” N

광야 같은 삶에 위로의 찬양을 전해주는 내일만나

글 | 정현 강도사



“전도사님! 저희 교회 찬양팀도 음원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작년 7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축소되고 멈춰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주일예배가 끝나고 다른 일로 비전센터로 걸어가는 중에 한 성도님을 뵈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기 좋은 칭찬으로 생각하고 저희에게 과분하다고 손사래를 쳤죠. 유튜브 검색만 하면 훨씬 좋은 소리로 멋지게 찬양하는 영상들이 넘쳐나는데 그냥 그런 찬양 영상을 찾아서 들으시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하고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 내일교회의 목소리로 내일교회 성도님들께 나누는 찬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기도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집안 일 하실 때 가볍게 그냥 틀어놓고 들을 수 있다면, 그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집사님 몇 분과 나누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져 지금의 청년들 섭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팀원은 확보되었지만 남은 문제는 녹음을 하고 믹싱 작업을 하려면 성능이 좋은 노트북과 여러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할부로 노트북 구입을 허락해준 아내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원과 도움 덕분에 ‘내일만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문화쌀롱 알쓸신잡(알아두면 쓸 데 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지대넓얕(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한 번쯤 들어 보셨나요? 내일 가족분들의 지적 오지랖을 넓혀드리기 위해 내꿈에서 책, 음악, 미술, 사진 등등 다방면의 글을 매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



‘내일만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골방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보다 나은 영상 제목이 필요하겠다 싶어 의견을 내 보자고 했고 청년 자매들이 ‘내일만나’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식 웃었는데 계속 곱씹어보니 참 좋았습니다.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상징이었던 ‘만나’, 오늘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내일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찬양이 만나와 같은 위로와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자연스레 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내일만나’의 팀원은 건반 연주, 찬양 편곡, 곡의 콘

셉트를 잡아주시면서 최근 영상 편집과 자막까지 역할을 맡은 김선연 집사님, 모든 기타 파트 연주와 보이지 않지만 가끔 화음으로 함께하면서 음원의 믹싱을 해주시는 장석한 집사님,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일만나’의 실질적인 주원들이 되어주고 있는 보컬 파트에 김주명 집사님, 김영빈, 김자연, 김유림, 김은송, 청년부 형제자매님들, 얼마 전 합류하여 장비 셋업, 현장 자막, 촬영 등 1인 7역을 소화해 주고 있는 이원병 청년과 그리고 찬양 속 조연으로 또 이런 저런 보조역할로 함께하는 저! 정현 강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일만나’를 통해 불리는 곡의 선정은 우선 저희 안에서 좋은 곡들을 나누어 보고 그 중에서 선곡을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영상 녹음부터는 3곡의 찬양에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를 담아보자는 생각으로 곡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찬양을 보면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도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 소망’,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동행’을 선곡했었습니다.

곡 선정이 되면 파트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함께 모였을 때, 같이 연습을 하고, 녹음을 진행한 후에 영상을 촬영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각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서 가능한 녹음과 촬영을 하루 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모여서 ‘세팅-연습-녹음-촬영’의 순서를 진행하는데 6~8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녹음한 음원을 믹싱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듣기 좋게 다듬고 다듬어진 음원을 촬영한 영상과 합친 후에 자막 등의 작업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모두 일을 하시면서 이런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어서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시기도 하고 좋았다고 해주셨던 곡이 ‘동행’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에는 이경우 원로 장로님께서 객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 ‘동행’이라는 찬양을 저희 팀의 집사님께 소개를 받고 들어보니 이 곡은 우리 팀원들처럼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보다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 긴 세월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께서 지난 삶을 반추하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듯이 불러주실 때 곡이 주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살아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콘셉트에 잘 맞는 분으로 장로님이 추천되었고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찬양을 잘하지 못하

다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도 된다고 하셨지만 첫 연습을 함께 해보고는 장로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찬양 영상이 완성되고 아내와 영상을 보는데 둘 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삶으로 노래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에 공감해 주시면서 ‘동행’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리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찬양의 콘셉트와 필요에 따라서 꼭 모셔야 할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만나’는 언제든지 특별출연자를 섭외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난 2월 영상 준비하면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녹음한 2곡의 음원이 기계 오류로 날아가 버려서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서 결국 12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녹음하고 작업할 때는 힘이 들었지만 만들어진 찬양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 녹음 과정의 힘들었던 것들이 감사로 반전되는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팀원들과 첫 모임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니 1년은 꾸준히 합시다!” 지금은 성도님들께서 영상을 좋게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 관심이 줄어들어도 처음 마음 변치 말고 1년은 꾸준히 자리를 지켜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거나 적음에 개의치 않고 1년이 지나고, 2년, 3년...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나가다 보면 언젠가 지금의 팀원들이 아니라 많은 내일교회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새로운 ‘내일만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내일만나’가 가지고 있는 작은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N**

소소한 일상의 묵상

봄을 봄

글 | 내꿈팀 권지영 집사

손바닥이 간질간질 건조하다.
이건 나만 느끼는 봄이 오는 신호다.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고 있지만
봄이 오고 있는 줄 나는 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다.
오늘, 봄은 아니지만 곧 봄이 올거라는 기대가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현실앞에서도 웃게하는 힘이 된다.

나무들도 간질간질 새싹이 움트듯이
우리 마음에도 사랑의 씨앗들이 몽글몽글 싹을 틔우면 좋겠다.
겨우내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사랑의 싹으로 자라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
생명의 빛을 가꾸는 농부의 봄이 되기를 ...

+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안 갈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이사야 58:11) 



Winter Vacation Bible School

교육부서 온라인 겨울성경학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배우는 성경학교

글 | 초등부 김은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3번의 시간동안 나는 엄마와 뚜루뚜루 뚜루~~신나는 챗트를 3과까지 외우며 신나게 성경학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이야기는 다시 들어도 재미있었습니다.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으로 들어간 이야기...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신 목사님. 전도사님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신나는 랩으로 챗트를 가르쳐주셔서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익숙하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도 먹으며 신나게 뛰고 찬양하였던 예전의 성경학교가 그리웁니다. 성경학교가 끝날 때쯤이면 친구들을 데려가기 위해 오셨던 부모님들로 교회 입구가 북적거렸던 장면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부모님을 만나면 신나게 성경학교의 은혜를 나누며 부모님 손 잡고 귀가하던 시간들, 얼른 다시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글 | 유년1부 권아현
세 번의 성경학교 너무
재미있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광야 캠핑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말씀 암송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만 열심히
외워볼 거예요.

글 | 유년1부 임은유
겨울성경학교를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재미있어서 두 번을
봤다.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승리하는 온유가
되겠다.



글 | 유년2부 권나운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을 몰랐는데 알게 되어
 좋았어요. 춤을 따라서
 같이 추는 것도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겨울성경학교 좋아요. ㅎ



글 | 유년2부
 전강민&전강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캠핑카' 찬양과 율동으로
 즐겁게 겨울성경학교를
 시작했다.

불기둥, 구름기둥
 내비게이션을 주시고,
 아무 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또한 만나가
 먹고 싶고 만나가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는
 시간이었다.



노래로 배우는 성경, 재미있는 성경학교

글/그림 | 조예린



가자 천국으로!

글 | 사랑부 교사 김수옥 집사

2021년 사랑부 겨울수련회가 2월 21일, 28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자 천국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된 사랑부 겨울수련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러지는 수련회 영상을 보면서 사랑부 친구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어 알차고 지루하지 않게 구성하기 위한 목사님의 고민과 기도의 흔적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공과를 정하시고는 아이들과 연극을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내심 많이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무언극 <떨어지지 않는 의자>를 들고 오셨을 때 이정도면 가능할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극에는 자신이 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각 가정으로 영상을 보내고 의견을 수렴하여 배역을 정하고 소품을 준비하는 과정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모두 모일 수 없으니 찬양과 워십팀이 먼저 영상을 찍고 연극팀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모두들 처음 경험해보는 영역인지라 서툴렀지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무언극의 뜻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겨울수련회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특순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친구들을 볼 수 있었고 아울러 멋진 연주와 찬양의 선물까지 풍성히 받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수련회에 끝까지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어려워 못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미션을 수행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겨울수련회의 주제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수련회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서 사랑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랑부 친구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N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글 | 청년 3부 장은혜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 관계 속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 이성보다는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생각하는 사람 등 누구나 자신만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 나에게는 그것이 '지나치게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성격은 지금껏 내 삶 속에서 양날의 검이 되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벽을 추구했기에, 지금껏 다른 이들과 갈등이 생겼던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상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두려워 나의 감정들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솔직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작년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완벽을 추구했기에, 다른 이들보다 몇 분이라도 더 오래 의자에 앉아 있으려 노력했고, 그 결과 감사하게도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그러나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하루 9시간 이상씩 공부했던 나날들은 1년간 나의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는 데 충분했다.

이처럼, 나의 완벽주의적인 기질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원동력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끊임없이 현재를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났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번번이 넘어지고 흔들렸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일 것이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연약하게 지으셨을까? 개인적인 목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길 원하는 것 같다. 나는 그 사실을 2020년 한 해 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알 수 있었다.

2020년은 나의 짧은 24년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인내의 시기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 방대한 양의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교육론보다도 나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다. 저출산 상황 속에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임용고시 경쟁률은 '과연 올해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그 속에서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고, 반드시 교사로 세워 주실 것'을 믿어야 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가장 선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어야 했다. 설령 올해 이 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유익하고 바른 길일 것임을 믿어야 했다. 이러한 믿음은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하게 되었지만, 만약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나치게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결과인 것이다.

그동안 나는 왜 그렇게 완벽해지려고 애들바등 노력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완벽주의자의 이면에는 간절하게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제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평안의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나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사람이든, 상황이든) 모두 정리되길 바랐다. 조금이라도 내 삶의 평안함을 해칠 만한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 과거의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만들기를 원했고, 또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과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분명 나는 무언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것은, '평안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임용고시에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최선의 길임을 믿을 때 나는 새 힘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의 고질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셨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안해하는 날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내가 만약 당신의 자녀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불안해하는 자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다음 시험의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나의 노래는 우리의 가슴과 같아서 기쁨 때나 슬플 때, 감동을 받거나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내 가슴 안에서 더욱 왕성하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시와 노래는 우리의 삶에 많은 곡절을 반주로 삼고 있지요. 내가 자주 부르는 나만의 노래에 스민 희노애락을 - 그 승화된 신앙 이야기를 내 삶 넘어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꿈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나의 노래'를 불러 볼까요!

두려워하는 자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진다.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신다. 이처럼, 온 땅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 심지어 그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하고 또 평안하게 인도하지 않으실 리 없지 않은가.

아주 유명한 찬양이지만, 이 글을 쓰며 생각난 찬양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다. 나와 같이 불안과 두려움의 영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는 모든 이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이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는 올해로 스물네 살이 되었다. 앞으로 내가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을 것이다. 특별히 이제는 나에게 새로이 주어진, 교사로서의 직분까지 감당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를 두렵게 했던 그 어떤 날들보다 나를 더 두렵게 할 수많은 날들을 마주할 것이다. 내가 작년의 경험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결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님을 깨달았지만, 내 삶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날들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 나를 서서히 변화시킬 것이다. 작년에 교육과정 공부를 하면서 생긴 나만의 신념이 있다. 우리 각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마다의 ‘개별화된 교육과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교육과정에 순종하여 늘 다음 단계로 달려가야 한다. 그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날을 기대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N**



여호와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극우익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시편 18:2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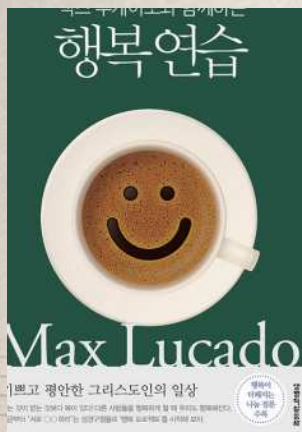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맥스 루케이도와 함께하는 행복연습

맥스 루케이도 / 생명의 말씀사



글 | 오경제 목사
소망1교구 / 장년교육위원회



“많은 사람이 행복으로 가는 정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소유하면 행복하다’라는 구호가 적혀있다. 반면에 사람들이 덜 이용하는 후문에는 ‘배풀면 행복하다’고 적혀있다.” p15.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는다면, 낯설고 소모적인 질문으로 받아드려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내 인생은 거리가 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우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말이죠.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 여러 접근이 있을 수 있지만, 맥스 루케이도는 본서에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소유’를 추구했다고 말합니다. 즉, ‘돈, 명예, 권력, 사람들의 인정 등’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질문에 맥스 루케이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해지는 삶은 ‘소유’가 아닌 ‘섬김과 베품’을 추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가는 문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면 행복하다”는 구호를 버리고 “배풀면 행복하다”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성경 속에서 10가지 행복 원리를 제시합니다.

10가지 행복 원리

- 서로 격려하라(살전 5:11)
- 서로 참으라(엡 4:2)
-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빌 2:4)
- 서로 문안하라(롬 16:16)
-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약 5:16)
- 서로 섬기라(갈 5:13)
- 서로 용납하라(롬 15:7)
- 서로 권면하라(골 3:16)
- 서로 용서하라(엡 4:32)
- 서로 사랑하라(요일 3:11)

<10가지 행복 원리>를 모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내 삶을 지탱하기에도 버겁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배려는
시간을 소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 '40일간 행복 연습'을 시작하자고 말합
니다.

‘행복 연습’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자기진단) : 나의 행복도에 대한 평가.
1~10으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인가?
- 2단계(결심) : 40일간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 5人を 행복하게 하는 일에
도전 할 의향이 있는가?
- 3단계(주제선정) : 10가지 행복 원리
중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2~3가지
주제 정하기.
- 4단계(실천) : “서로 OO하라”는 성경 구절 옆
에 이름을 적고 <행복 원리> 실천하기.



본서를 '내일의 꿈'에 소개하면서, <10가지 행복
원리>에 반복되는 '서로'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지
난 추억이 떠오르며 '함께'라는 단어로 보였습니다.
2011년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개척할 때, '더함 공
동체(더디 가도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애칭을 정
했습니다. 서로가 한 마음을 품고 함께하는 것은
자기희생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생각하고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더디게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
라보면 그 공동체와 구성원은 더함(PLUS)이 됩니
다.

많은 사람이 행복으로 가는 정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소유하면
행복하다.'라는 구호가 적혀 있다. 반면에 사람들이 덜 이용하는 후문
에는 '배풀면 행복하다'고 적혀 있다. ✓
선을 행하는 것은 행하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하다. 실제로 다양한

3월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되찾고 싶다면, 맥스 루케이도가 제안하는 '소유의
행복'이 아닌 '배풀면 행복해지는' <행복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N

내일365일기도회

정리 | 내꿈팀 장요한 집사



내일365일기도회는!

내일365기도회는 365일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155명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매일 오전 8시경 각 요일별 기도제목이 올라오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요일별 기도제목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내일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나라와 대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각 교구별 환우기도가 올라오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 정기모임 : 매월 첫째 주(목요일) 오전 10시30분
현장 및 비대면(zoom)
- 참여방법 : 기도학교 수료 후 참여

참가자 소감

사실 지금도 기도는 나를 긴장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2년 전, 집사라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고, 가정적으로 산적한 문제를 혼자 기도하니 힘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해 기도학교를 수료하고 겁도 없이 중보 기도팀에 바로 합류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며 풀잎 같은 내 모습에 기가 죽기도 했지만 기도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힐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상모임이 만들어져서 흘러져 있는 영혼들을 모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영상기도회로 집중하여 몰입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김지영 집사 -

작은 폰 앞에 마음을 모아 앉는다. 365기도회 "그래그래 내가 이 기도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머미소 먼 얼굴로 기도회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이 느껴져 죄송하고 아파서 한참을 엉엉 울었다. 주님! 3년 가뭄으로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의 기도예 손바닥만 한 구름이 떠올라 큰 비가 된 것 같이 이 작은 기도의 구름이 대구와 민족을 흠뻑 덮는 큰 기도가 되게 하소서(아멘)

- 조근익 권사 -

내일기도학교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언제 기도해야 할지, 기도하면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기도생활을 하기 위해 훈련받은 성도들이 온라인 공간과 교회에서 [내일365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365일 쉬지 않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카톡을 통해 기도문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와 나라와 대구를 위해,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선교와 열방을 위해, 북한을 위해, 내일교회와 선교지와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큰 폭풍을 일으키듯이, 내일365기도가 각 개인과 교회와 대구에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 강성애 권사 -

부족하지만 365기도회 모임이라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곳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짖음이 있는 곳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적절한 때에 기도제목들 응답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 유혜련 권사 -

코로나로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이때에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문에 따라 매일 기도하며 1달에 1번 줌을 통하여 기도하는 내일365기도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햇불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중재자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막힌 곳을 막아 기도하며 작은 모퉁이를 담당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N

- 무명 -

믿음 소망 사랑의 새 일꾼!

교회의 많은 섬김의 자리 중에 가장 작은 그룹에서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예친의 순장님들 - 올해도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많은 양육의 과정 속에 그 채움의 감사를 이기지 못해 개인적인 많은 부담과 걱정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순종을 하신 신임 순장님들을 소개합니다. 그분들의 짧은 기도도와 당부, 각오들이 그 이름을 향한 우리들의 응원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진 거 아니죠?

구역 곳곳마다 그 이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작은 씨앗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185예친 이종선 집사 한술밥 먹는 식구처럼

안녕하세요.



185 신임순장 이종선 집사입니다.

한술밥을 먹는 식구처럼

지체들의 기쁨과 힘들을 스스로없이 같이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예친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안에서 한 식구처럼 편안한 예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구들보다 먼저 일어나 식구들을 위해 새벽밥을 짓던 엄마의 모습처럼 먼저 기도로 섬길 게요.

283예친 박순희B집사 사랑하며 축복하는 순장으로의 순종

안녕하세요.

이번에 283예친 순장으로 임명받은 박순희B 집사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권면하면서 주안에서 맡겨진 예친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소망

326예친 이수진 집사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령 공동체



소망1교구 326 예친을 새로이
순장으로 섬기게 된 이수진 집사
입니다.

몇 해 전 순장으로 섬김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다시 순장으로
세워지니 예친원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친원들을 향한 사랑과
궁휼함의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함께 하
나님을 알아가는 성령공동체 326예친이 되길 소
망합니다. 감사합니다.

442 예친 이하담 집사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부흥을 꿈꾸는 예친



442예친을 섬기게 된 이하담
집사입니다

부담이 많이 되지만 성령의 능
력으로 부원과 함께 믿음의 걸음
을 걸어 가고자 합니다

442예친의 놀라운 부흥을 꿈
꾸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

534 예친 김주원a 집사

힘든 시기지만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이번에 새롭게 534예친 순장
을 맡게 된 김주원집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친 중심이기에
순장이라는 섬김의 자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힘든 시
기에 남정네들이 그저 모이는 것

도 힘든데, 온라인 모임이 가능할까 싶지만, 애써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섬기
며, 부끄럽지 않은 순장이 되도록 기도 많이 부탁
드립니다. **N**



2021 신임 순장

믿음1: 강성애 권사, 이종선 집사,
오지현 집사

믿음2: 박순희b 집사

소망1: 박태자 집사, 이수진 집사

소망2: 김경숙b 집사, 지영호 집사,
이하담 집사, 이혜희 권사,
오진귀 집사

사랑1: 김주원a 집사, 박곡자 권사,
양남이 권사, 조춘귀 권사

사랑2: 우은숙 집사, 김지영g 집사





온라인으로 클리닉 ! 2021 예친 on-line 오리엔테이션

글 | 교구 디렉터 이상범 목사



거리두기 집합금지! 이것이 사회적인 매너가 되어버린 지금- 모이기를 폐하여 믿음의 삼겹줄을 끊기보다 마스크를 벗고 드디어 모였습니다.

물론 매너있는 영상 모임으로^^!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을 나누었거나 애태우며 기다리며 드문 드문 모임을 하는 예친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하고 맺었지만 2021년은 지난 22일(월)~28일(주일) 1주간 예친 모임과 목양팀 모임을 교구 내 목양팀 별로 (목양1팀(화), 목양2팀(목), 목양3팀(토)) 활기차게 영상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샬롬교구와 라파교구는 유튜브 송출로 진행)

Ready!

설마 아직도 영상 기도와 인사 나눔이 어색하십니까? ^^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자의 반 타의 반 적응해야겠지요. 아직 영상회의 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치방법과 사용법을 한 번 더 영상으로 보내드려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소요시간	내용	담당자	비고
Pm7:30	Zoom 방 오픈		서로 인사!
1분	시작기도	교구목사	
4분	찬양1	영상송출	♬주의 이름 높이며
10분	담임목사님 인사	영상송출	
5분	신임순장인사	교구목사	
30분	소통과 나눔의 시간	교구목사	
4분	찬양2	영상송출	♬주 은혜임을
10분	합심기도 1. 예친모임과 예친원들을 위해 2. 교회, 순장, 사역자들을 위해	교구목사	
3분	마무리기도	목양팀장	

Go!

신임 순장부터 목양 팀장, 목양팀 총무, 예친원들까지 하나 둘씩 접속합니다! 두근두근.. 이제 공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드리게 되었지만 아직은 마스크를 낀 모습으로 조용히 지나가고 담소와 나눔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모임을 하니 비록 영상이지만 얼굴을 다 보면서 인사하고, 대면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면 참 감사한 세상입니다.

들어오신 분들의 인사와 소망, 각오를 음성으로 듣고 목양팀별로 각 목양팀에 어떤 분들이 섬기고 계시고 속해 있는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Epilogue....

아직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만남과 접촉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습시다.

모두가 한 가지 사정이 아니기에 목양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배워나가고 감사할 것도 많아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일 일상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올 한해도 예친 모임이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새롭게 2021년도 예친모임 리스트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며

글 | 382예친 순장 서은연

목양 3팀의 신년 예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 2월 27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었다. 매번 대예배실에서 함께 모여 예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아쉽기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다. 방구석1열이란 프로그램도 있던데, 팀장 장로님, 총무 권사님, 집사님 등 대부분의 순장님들과 적은 수지만 일반 예친원도 함께하였다. 각자의 집 방 한 부분을 차지하고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네모난 화면 속 너머 서로를 응시하며 실로 얼마 만에 마스크가 아닌 맨얼굴을 보는 기쁨이었던가!

타인과의 대면에서 마스크 낀 모습이 이젠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져서 오히려 화면 속 내 얼굴이 전체 노출되는 게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어색함도 잠시뿐, 오경제 목사님의 자연스러운 진행과 재미난 장면으로 인해 금방 따뜻한 사랑방에서 담소를 나누는 것처럼 편안해졌다. 처음 순서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함께 순장으로 섬기는 부부집사님 중 남편 집사님의 순서가 되었다. 각자 방 하나씩 차지하셔서 한 화면에 한분씩 보였는데, 음소거나 비디오 중지 등 조작법이 익숙치 않은 남편 순장님이 허둥되는 순간, 옆방에서 홍길동처럼 나타난 아내 순장님께서 무음의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퇴장하셨다. 그리고 다른 목양팀으로 잘못 참여한 코믹한 이야기도 풀어내주셔서 딱딱한 화면 속 분위기 전체를 한바탕

웃음으로 승화시켜주셨다.

인사를 나누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예친 상황과 개인적인 신앙 생활도 함께 나누었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친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과 느슨해진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고백도 있었다. 나 또한 예친원들을 생각하며 더 기도하고 신앙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왔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여러 교구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 미리 준비하신 찬양은 잔잔히 흥을 더했으며, 담임목사님과의 인터뷰에서 부목사님들의 재치 있는 말솜씨를 보면서 평상시 서로 편안한 관계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서 보기에 좋았다. 신나는 퀴즈시간도 우리를 흥분케 했다. 정답은 목사님의 개인톡으로 보내면 쿠폰을 싸주시는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속정확하게 답을 전송하신 집사님에게 치킨쿠폰이 하사되었다. 퀴즈에 연연해하는 스타일인데,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으니 올해는 나의 해가 아닌 것 같다. 내년을 기대하며 그래도 기뻐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까지 준비하시고 애쓰셨을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지난 시간의 장면들이 지나가며 우리가 언제 이러한 상황이 올지 예상이라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초가 되면 예친클리닉을 교구별로 진행하면서 교회 곳곳의 장소에서 말씀 듣고 시상도 하고 간증도 하며 중순끼리도 모여 각오를 다지고, 다과를 나누며 보내왔던 소중한 지난날은 다시 재현될 수 없는 것인지. 예친 모임을 자신의 휴대폰 화면에 얼굴을 대고 들여다보며 예친 모임을 진행하게 될 줄은 누구라도 상상 못했을 것이다.

담임 목사님의 인터뷰 중 기억에 남는 말씀을 떠올려본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라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현상으로는, 온



라인으로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아가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고 성숙시키시고 확장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길을 만드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시면 충분하지!

올해도 우리는 한 번도 생각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모든 상황들이 때론 절망적이고 어느 한 구석 성한 곳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분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나아갈 수 있다. 예친 온라인 OT는 끝이 나고 이제 개학을 코앞에 둔 부족한 순장으로 다짐해 본다. 주님! 우리 예친을 기억해 주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치이고 상처받고 울분이 있는 쓰라린 가슴 안고 주님께 나아올 때 아나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 위기를 잘 넘어가고 묵묵히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N**



내일만나 YouTube



대한예수교장로회 **내일교회** NAE-IL PRESBYTERIAN CHURCH
427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212 (장동)
TEL.(053)587-2121 FAX.(053)587-2124 <http://naeil.or.kr>

새벽기도회 1부 새벽4:50 / 2부 새벽5:50 | 주일1부예배 오전7:30 | 주일2부예배 오전10:00 | 주일3부예배 낮12:00
청년2부예배 오후2:00 | 청년3부예배 오후2:00 | 주일오후예배 오후3:10 | 수요기도회 저녁7:30 | 금요기도회 밤8:30
영아부 오전10:00 | 유치부 1부 오전10:00, 2부 낮12:00 | 유년부 1부 오전10:00, 2부 낮12:00 | 초등부 1부 오전10:00,
2부 낮12:00 | 중등부 오전10:00 | 고등부 오전10:00 | 사랑부 낮12:00 | 내일플러스 오전10:00, 낮12:00, 오후2:00